

온대 → 광주·전남 아열대

올 평균 겨울기온 3.53℃...2000년이후 급등
순천, 한겨울에 초여름 날씨...사계절 사라져

광주·전남지역의 기후가 아열대대로 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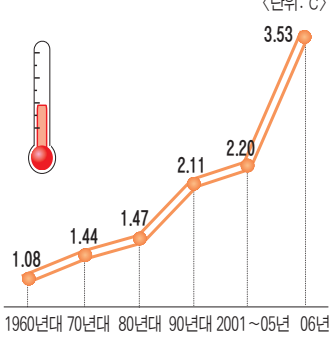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하듯 광주·전남은 온대지방의 가장 큰 특징인 사계절의 구분이 애매해지고, 겨울 기온은 물론 연평균 기온이 급속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겨울은 낮 최고 기온이 10도를 넘는 포근한 날이 계속되면서 '추운 겨울'은 완전히 실종된 상황이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의 겨울(12월~2월) 기온은 지난 1938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지난 1960년대 보다 1.34도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겨울 평균기온은 1961년~70년 썩 1.08도에서 1971년~80년 1.44도, 1981년~90년 1.47도, 1991년~2000년 2.11도, 2001년~2006년 2.42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60년대~80년대에는 연평

연대별 겨울 평균 기온 변화 (단위:℃)



군 겨울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한 해가 8번이나 있었으나 1991년 이후 2006년까지 16년 동안에는 연평균 겨울기온이 영하 이하로 떨어진 해가 단 한번도 없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7일 까지의 광주지역의 평균 기온은 무려 3.53도를 기록했다. 특히 전남동부권인 순천의 경우 이달 초 낮 최고기온이 21도까지 오르는 초여름에 가까운 날씨를 보였다.

이 때문에 기상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 겨울 이상난동을 일시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광주·전남지역이

▲아열대기후=월 평균 썩 썩 10도 이상의 기온이 8개월 넘게 이어지는 기후를 말한다. 대개 위도 25~35도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아시아에서는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이에 해당된다.

아열대 기후로 진입하는 징후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연평균 기온도 1970년 썩 13.3도에서 2000년까지 13.5도로 증가한 이후, 수년간 13.6~13.8도를 오르내리다 2004년 14.3도로 처음으로 연평균 기온 14도선을 돌파했다. 이후 2005년에 13.6도로 약간 내려가지만 2006년 14.2도로 곧바로 상승했다.

겨울기온 및 연평균기온의 상승으로 봄꽃 피는 시기도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광주에서 개나리가 피는 시기는 70년대에는 3월24일~4월8일 사이였으나 2000년대에는 2월27일~3월20일로 1개월 가량 앞당겨져, 겨울에 활짝 핀 개나리나 철쭉을 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이송배기자 lsb54@kwangju.co.kr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하는 로세르탈레스(가운데) BIE 사무총장 등 BIE 관계자들과 세계적 석학들이 8일 오전 여수공항에 도착,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수엑스포 주제 적절”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국제 심포지엄 어제 개막

여수를 세계에 알리고 '2012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8일 오후 전남대 여수캠퍼스 국제회의장에서 개막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주최하고 세계박람회기구(BIE)가 후원하는 이번 국제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여수의 2012세계박람회 유치노력과 유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바다와 연안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와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예일대의 폴 케네디 교수를 비롯한 세계적 석학들과 31개 BIE회원국 대표 51명,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 등 국내외 인사 270여 명이 참석했다.

우 쟌민 BIE총회회장은 축사에서 “한국은 박람회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알고 있는 국가로서, 전시와 교육, 교류, 협력, 혁신 등 박람회가 추구하는 이념을 전파하는 아시아의 개척자”라고 강조하고 “여수가 선정한 주제는 세계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바

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교수는 “해양과 연안”을 다루려는 여수의 박람회 주제가 너무도 중요하고 또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가장 소중한 자원인 해양을 파괴하지 않고, 해양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여수 세계박람회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주제발표에서는 칼 크리스티안 슈미트 OECD수산국장 겸 룬 빈데 UNESCO 예측국장, 한국해양연구원 이동영 책임연구원이 최근 해양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발표했으며, 2부에서는 리니오 부르토메소 이탈리아 베니스 IUAV대학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동오 해양정책연구본부장 등이 ‘지구 생태계에서 바다와 연안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이날 심포지엄을 마치고 둘째 날 심포지엄이 열리는 경남 남해 힐튼 리조트로 옮겨 전남지사와 경남지사가 공동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社 告

제22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

고영만 質協지부장 ‘여성무역인 창업...’

13일 광주 신양파크호텔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13일 오후 6시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제22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

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영만 한국여성무역인 창업 및 바이어 발굴이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시민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 일시 : 2월 13일(화) 오후 6시
- 장소 : 광주 신양파크호텔
- 주제 : 여성무역인 창업 및 바이어 발굴
- 감사 : 고영만 한국여성무역인협회 광주·전남 지부장
- 회비 : 1만원
-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062)523-6028
광주일보사 경제부(062)2200-620

光州日報社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겨울 80년전보다 한달 짧아졌다”

이만기 기상청장 “폭염·폭우...올 이상기온 많아”

이만기 기상청장은 8일 “올해 우리나라 기온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고 이상 기온현상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영국 기상청은 올해가 세계적으로 가장 더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올해 기온이 평년치인 12.4도보

다 0.5도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간이 80년전에 비해 한달 가량 짧아졌고 100년 후에는 15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 이상기온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황사발생 일수는 서울의 경우 80년대 3.9일, 90년대 7.7일, 2000

년 이후 12.8일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 강도도 세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이상 기상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로 ▲겨울철 한파 감소 및 대설 강도 확대 ▲봄철 황사 빈발과 가뭄 가능성 증가 ▲여름철 집중호우 강도 심화와 열대야 등 폭염 발생 증가 ▲가을철 태풍 피해 가능성 증가 등을 들었다. /연희뉴스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100년의 사람 - 부채표
동화약품
김동원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http://marathon.kwangju.co.kr | 전화: 1062220-0541